



〈삼위일체〉, 1410-1440년경, 템페라, 국립미술관, 런던, 영국

**성화
해설**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원래 제단의 가운데 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천상의 옥좌에 앉아 계신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들고 있으며, 성부와 성자 사이에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께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간의 긴밀한 사랑과 일치를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입당송 이사 48,20 참조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시편 98(97),1,2-3ㄴ,3ㄷ-4(◎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

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1요한 4,7-10

복음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5,9-17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사랑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먼저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십니다. 예언자 호세아로부터 시작된 예언자 전승은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혼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구체적인 행위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레위 19,18) 요한 서간에서는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합니다(1요한 4,8).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위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례는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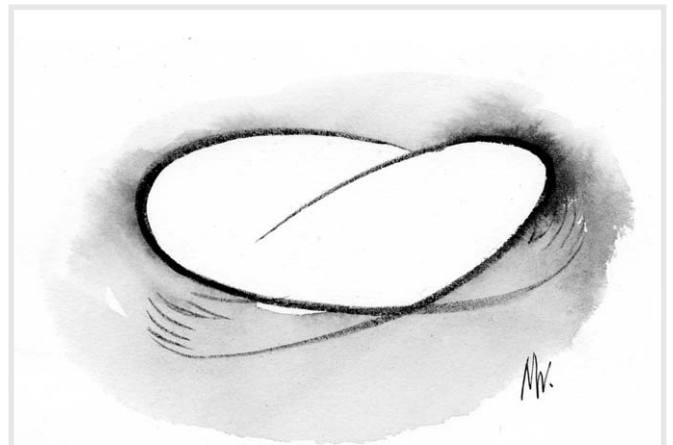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하느님께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거센 반대와 위협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과 계산된 논리가 빚어낸 인간 욕심의 결정체인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하느님 사랑의 심오한 성격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권세를 눌러 이기고 승리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막아놓은 당신과 인간 사이의 두터운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마저도 무

력화시키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삶의 공간을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두터운 불신과 뿌리 깊은 소통의 부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이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려의 행위는 이웃을 향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관심 어린 배려의 시선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이미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한 몸짓이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표출될 때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결혼의 조건



이금주 벨라뎃다 | 방송작가

결혼식이 넘쳐나는 달이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대입이나 취업이던 화제의 주제가 어느새 결혼으로 바뀌었다. 우리 삶만큼 결혼의 상황도 복잡한 것 같다.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거창한 결혼부터 부모의 도움과 간섭을 모두 거절하고 커플 반지 하나로 혼수를 끝낸 당찬 결혼까지 사례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결혼 뒷담화의 끝은 결국 조건이 문제로 남는다. 가정환경에서부터 직업, 외모 등등. 사랑은 짧고 현실은 길다는 주장부터 그래도 사랑이 우선이라는 반론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도 실상 복잡한 손익계산서 맞추기가 아닌가 싶다.

A여사는 출중하게 잘생긴 의사 아들이 5년이나 사귀, 평범한 며느릿감과 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 완강하던 아들도 결국 엄마가 원하는 신부와 결혼했다. 팔십 평 아파트에 가정부까지 혼수로 가져 온 유학과 며느리는 눈부시게 우아했다. A여사는 부자 사돈과 혼수 자랑에 신바람이 났다. 게다가 아들은 A여사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어느 날 A여사는 독감으로 몸져누웠다. 열흘 내내 소식 없는 아들에게 A여사는 며느리조차 어떻게 전화 한번 없냐며 화를 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병문안을 왔다. 유기농 오렌지 주스를 운전기사 손에 들려서 온 며느리는 정확하게 이십 분 소

파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결혼 6개월이 되었지만 아들 집에는 결혼 초 딱 한 번 가보았다. 차 한잔 마신 게 끝이다. 병원 일로 바쁜 아들은 그나마 시간이 생겨도 처갓집 행사에 불려다니느라 이젠 보기조차 어렵다.

제법 살 만한 B씨네 딸이 집에 데려온 사윗감은 부모도 여윈 가난한 청년이었다. 졸업한 대학도, 다니고 있는 회사도, 크게 내노라 할 만한 건 하나 없었다. 그렇다고 뛰어난 외모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청년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어이없어하는 부모에게 딸이 내세운 장점은 청년의 신앙심과 성실함이었다. B씨는 사윗감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한 번도 제대로 진찰받아본 적이 없던 청년은 수술을 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거액의 수술비를 부담했다. 경과가 좋아 거의 표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사윗감은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물음에 B씨는 내 딸이 사랑하는 청년인데 아들을 하나 얻은 것 아니냐, 불우이웃도 돕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문득 하느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삶의 자세와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다. 누구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0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아이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은...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혼인 그 자체가 부부로 하여금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직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런 부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을 줄 뿐이다...아이란 어느 누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부부가 가장 감사해야 할 혼인의 선물, 즉 하느님이 주신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 증여 행위의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다” (생명의 선물 제2부 8항).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7쌍 중 한 쌍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아기를 낳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교회는 이를 반대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인간의 품위를 훼손될 뿐 아니라 많은 배아가 파괴되거나 냉동되는 등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존엄성을 지닌 인격주체이기에 부모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불임부부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입양 등 생명을 위한 다른 봉사의 기회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며, 과학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 연구를 계속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마르 1,38).

일 반병원사목부는 가톨릭병원(CMC)이 아닌 병원
에서 환자 방문과 기도, 성사 거행을 하는 원목
자들과 봉사자들, 교우회와 가톨릭간병인회가 함께 사
목하는 곳입니다. 일반병원 사목은 본당과 달리 다양한
곳에서 모인 환자와 가족들,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며
원목자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
우회, 보호자를 대신해서 환자를 간호하는 가톨릭간병
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늘 바뀌는 환자들과 가족
들, 환자와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병동 방문을 마다하지
않는 봉사자들, 직장인 병원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증거
하려는 교우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가톨릭간병인회가 특별한 곳, 특별한순
간에 서로에게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사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 보면 ‘라자로’ 라는 사람의 죽
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던 ‘라자로’ 라는 사람이 병을 앓
고 있다고 ‘누이’ 가 연락을 합니다. ‘라자로’ 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누이들인 ‘마르타’ 와 ‘마리
아’ 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라자로’ 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심판 날에 다시 살아나라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내용을 잘 보면 병원 사목을 하는 원목자들과 봉
사자들, 교우회와 가톨릭간병인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환자나 가족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목자들과 봉사자들은 병동을 방문하
여 환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위
한 기도와 대화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성사로 함께합
니다. 교우회와 가톨릭간병인회는 자신이 속한 직종 안

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에서 힘들고 불안해하며 모든 고통을 혼
자서 다 감당하며 혼자라고 생각할 때 원목자들과 봉사
자들, 교우회와 가톨릭간병인회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
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에서 라자로의 죽음과 가
족들의 슬픔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며 하느님 말씀
과 존재를 알리고 치유와 회복을 해주신 모습’ 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육체와 정신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
에 오지만 이제 원목자들과 봉사자들, 교우회와 가톨릭
간병인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사목은 단순히 병원이라는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사목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힘이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느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적극적인 영적인 돌봄’ 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병
원 사목이라는 의미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
반병원사목부는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예수님의 모습을 현실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가장 훌륭한 사목 중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병원사목부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

- 전화: 727-2050, 2073 / 팩스: 756-3762
- E-mail: care@catholic.or.kr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5층

소식

5월24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43차 '홍보 주일' 입니다(홍보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주교회의 서기에 장봉훈 주교 선출

주교회의 2009년 춘계 정기총회 주교 간담회에서는 주교회의 서기를 맡았던 최덕기 주교가 은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서기로 장봉훈 주교(청주교구장)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5월23일 이영일 베네딕도 신부(28세) 1979년, 용산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천호동성당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회계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5월27일까지 접수) / 문의: 470-5821, 2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세례증명서, 주임신부 추천서(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 통보함)

평화화랑 제2전시실: 이콘연구소 4기 작품전

평화화랑은 이콘연구소 4기 작품전을 5월20일(수)~26일(화), 제2전시실에서 전시합니다.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 평화화랑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마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사목국 성서사목부 자료수집(문의: 775-5789)

- 내용: 성서못자리 2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정리하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자료: 성서못자리 관련 문서와 자료, 사진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문의: 727-2065)

수도자 성체분배권 교육

-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분배권을 수여받지 않은 수도자 / 때: 5월21일(목) 오전 10시-12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5천원(현장 납부)

함께하는 여정 3단계

- 대상: 함께하는 여정 2단계 수료자(5월22일 까지) / 회비: 2만5천원(본당 신청서로 접수)
- 때, 곳: 5월28일-6월18일 매주(목) 오후 2시-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국 순교자 시성 25주년 기념 연수

- 대상: 본당 단체 임원, 레지오 단원
- 집전·강사: 최창화 몬시뇰, 유은희 수녀
- 때, 곳: 5월26일(화) 14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2009년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교육

- 대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활동할 봉사자 / 5월26일(화)까지 접수
- 내용: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 봉사자의 자세 및 영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
- 때, 곳: 5월27일(수)-28일(목) 10시-17시, 교정사목센터 '빛의 사람들' (성북구 삼선동)
- 문의: 921-5093(www.catholic-correction.co.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육·홍보부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한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향심기도(9박10일 집중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향심기도 회원들
- 때, 곳: 6월10일(수) 17시-19일(금) 13시, 여주스승예수피정의 집(www.hyangsim.com)
- 회비: 38만원 / 010-8674-1105 사목국 향심기도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종 수녀회	5. 24, 14시-16시	돈암동 본원	010-3065-8221
사랑의 씨튼 수녀회	5. 22, 19시30분	씨튼 피정의 집	011-9193-3005
살레시오 수도회	5. 23-24, (1박2일)	대림동 공동체(서울)	011-894-1332
성모 영보 수녀회	5. 24, 14시	과천 본원	010-8920-942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 수녀회(피정)	5. 30-31, (1박2일)	노들담교육관(서울)	010-9562-3339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5. 24, 14시	다락 공부방(서울)	011-9731-0283
작은자매 관상선교회(피정)	5. 23, 16시30분-24, 13시	진주 수녀원 본원	055)752-7665
착한목자수녀회·착한목자관상수녀회	5. 24, 14시-17시	수녀회본원(자양동)	010-2871-8805

알림

모임

청담동성당 은혜의 밤

· 강사: 서정혁 신부(청주교구) / 미사있음
· 때, 곳: 5월25일(월) 오후 8시-10시, 청담동성당

젊은이 1일 피정

· 때, 곳: 5월30일(토) 14시-22시, 한남동 수녀원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방배동성당 성령기도회 은혜의 밤

· 강사: 허윤석 신부(미사와 말씀) / 010-7277-1196
· 때, 곳: 5월20일(수) 20시-22시, 방배동성당 소강당

예수회 서울 피정

· 주제: "미사" 보다 깊은 만남을 위하여 / 718-3896, 7
· 때, 곳: 5월20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 이

마리아니스트 수도 성소피정

· 대상: 수도 성소 관심자 / 문의: 2648-7134
· 때: 5월24일(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곳: 마리아의 딸 수도회(주최) / 011-686-7134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아모임

· 때: 5월24일(일) / cafe, daum.net/flatmeeting
· 곳: 정릉 수녀원 / 010-5247-8913, 010-3825-4999
· 주제: 원죄없으신마리아 수녀회, 글라렛 선교수도회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문의: 016-309-0048)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은기순)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
(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삼성산 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5월18일(월), 25일(일) 오전 9시30분-17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마리아 영성 하루 피정

· 마리아 영성에 관한 강의, 묵상, 주일 미사, 안수
(성모님께 편지 쓰고 봉헌, 성모상 친구 예식)
· 지도: 김보록 신부(주최: 살레시오 관상기도모임)
· 때, 곳: 5월24일(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48-9932, 011-711-9928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영적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곳: 5월(6월)27일 매주(수) 11시30분-16시30분, 성령
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
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5월20일(수) 우상송배에서의해방/신교전신부(김포성당주임)
5월27일(수) 영적치유기도회와안수/경규환신부(예수회)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문의: 773-1455)

제주 피정	매일미사, 삼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5월24일-26일, 6월7일-9일, 6월21일-24일, 7월18일-21일
삼위일체회 피정	5월18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김보록 신부(살레시오회) / 처음오는 분께 5단 목주드림

예수살이 공동체 산위의 마을 단기입촌 · 청년 휴피정

· 노동과 명상으로 자신의 생을 컨설팅 함
· 지도: 박기호 신부 / 043)421-2144(www.sanimai.org)

청년휴피정 5월6일	1차: 5월19일(화)·24일(일) / 2차: 6월30일(화)·7월5일(일) 대상: 미혼 청년 대학생
단기입촌 7월8일	14차: 6월6일(토)·13일(토) / 대상: 30~40대 청장년과 귀 농 관심자(초등학생 자녀는마을분교에교환학습주선)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월요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성모송 2000번	때, 곳: 매월 둘째 · 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 (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교육

5차원 전면 학습 초 · 중 · 고생 초급 1과정

· 곳: 우아칭 살레시오 수녀회 본원(주최)-전철 7호
선 신공역 4번 출구 / 회비: 매달 8만원(교재비 별도)
· 문의: 832-8959, 010-3883-7004

수요일	5월20일부터 매주(수)14시30분-19시30분	원하는시간에
토요일	5월23일부터 매주(토)14시30분-17시30분	오면됨

진애인 아동 · 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상처받은내면자아치유와회복 5월23일·7월18일 매주(토)14시16시(5분6주)
전문심리치료, 음악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부적응) 부부 · 가족간의갈등
청소년 · 성인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지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매종 프로그램(발달 상담/임상 및 긴장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전문적 종합심리평가, 상담, 심리치료	잡념이 많아 집중을 못하거나 우울, 불안이 심한경우 또는 자기 주장이나 분노표현을 하지 못하여 부적응 상대인 학생이나 성인, 사소한 스트레스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기억력 저하가 심한 전 연령층
-------------------------------	--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약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기타: 3개월 18만원	드림	키보드(회성학)
일렉 베이스: 3개월 24만원	3개월 18만원	초급(3개월) 18만원
월 · 수 · 목(주 1회) 월 · 수 · 목(주 1회)	중급(3개월) 24만원	매주(수) 오후 1시5시30분 / 웃음치유피정 월 · 수 · 목(주 1회)

젊은이를 위한 영성수련 수강생 모집

· 때: 매주(화) 19시40분-21시30분(회비: 7만원)
· 곳: 서강대 김대건관 407호 / 705-8163 한국CLC

5월19일	내 인생의 하느님
5월26일	부자 청년과 나
6월2일	가짜 예수, 진짜 예수
6월9일	믿음의 원리
6월16일, 23일	하느님의 뜻을 이룬 첫째 방법, 둘째 방법
6월30일	세상 속의 교회
7월7일	마리아(결단과 선택)

구미시초여성회관 집단상담프로그램(문의: 522-0291-2 / 교223)

자아성장 프로그램	6월5일·7월24일 매주(금) 10시-12시30분(총8회)
감정조절 프로그램	8월3일·21일(월·화·금) 총9회
음악치료 부모교육	독서를 통해 감정조절을 도와줌 6월5일·7월17일 매주(금) 10시-12시30분(총6회) 6월26일 휴강
아동 · 성인	개인, 부부상담, 심리검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등, 인지, 언어치료, 특수체육, 무료전화상담
MBTI 유행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이해	6월26일(금) 10시-13시30분(1회)

전 · 진 · 상 영성사목센터

· 문의: 726-0700(www.jiscen.or.kr)

T · A 의사소통 훈련과정	5월19일·6월16일 매주(화) 10시-17시(5회) 자기 발견과 관계개선
감수성 훈련	5월28일·6월25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참자기 찾기 훈련	6월25일(목) 10시-21시 / 28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체성 찾기, 친밀한 관계
성경치유피정	5월28일(목) 9시30분-17시(미리등록 요망) "화(火)를 다스리는 치유피정" (선착순 12명)
개인상담	전문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모집

2009학년도 후기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5월13일-20일(13개전공, 전공별 약간명)
· 문의: 2164-4176, 4173(http://ged.catholic.ac.kr)

목동성당 교동미사 성가대 지휘자 모집

· 대상: 음악 전공한 신자로서 지휘 경험자
· 문의: 011-9892-8810, 010-4295-8024

마자벨로센타 직업훈련생 모집

· 대상: 만 13-17세, 도움이 필요한 비진학, 중퇴 청
소년(미용, 컴퓨터자격취득과 검정고시·국비지원)
· 문의: 832-5796, 016-768-4704 김미숙 수녀(담당)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주방직원 모집

· 곳: 경기도 가평 작은예수수녀회 성가대의 집(주최)
· 숙식가능(하신분(주5일근무)/010)68176822세실리아수녀

가톨릭대학교(서울 대신학교) 남자직원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5월22일(금)까지
· 문의: 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녀 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5월26일(화)·28일(목) 9시30분-17시, 가톨
릭회관 508호(선착순 15명, 환불 안됨) / 928-7185
· 회비: 7만원 / 우리는행 1005-701-131505 (재)천주교

2009학년도 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 전공: 회화, 도시환경조각, 교회미술, 그리스
도교미술사, 시각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전시디자인, 문화예술기획
· 접수: 5월29일(금)까지(www.uway.com)
· 문의: 032)830-7002(www.iccu.ac.kr) 송도국제도시캠퍼스

미사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 · 후원자 월례미사

· 때, 곳: 5월18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
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곶벚나무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주제: 성모님 안에서의 마음 상처 치유(구원도 신부)
· 내용: 미사, 영성강좌 / 문의: 010-8820-5560
· 때: 매월 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 793-2070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월요 다락방기도와 미사

·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
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5월25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
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카폴라 봉헌식 있음)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 기도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5월18일(월)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안내

해성보육원(국내입양 전문기관)

·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운영)
· 문의: 032)875-3240(www.hschild.or.kr)

부모자녀, 대인관계, 갈등해결, 행동변화

마음을 열게 하는 '칭찬대화법'
· 때: 5월22일(금) 10시, 14시(각 강의 3시간,
주1회·6주) / 3675-1338 가톨릭 여성의전화

나눔의 전화(전화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 정신건강, 위기
상담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 / 752-4411, 4413
· 매주(월-토) 10시-21시30분(일·공휴일 휴무)

성 바오로 병원 종합건강관리센터

· 2009년도 공단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
진, 영유아검진을 실시중(대상자분들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 바람)
· 때: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 958-2393, 2369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등급(내용: 노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 / 762-2225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
양기관(사회사목부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 비용: 건강보험보조 85%, 본인부담금 15%(월
11-17만원 안팎·월 80시간 이용 기준)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동과 재미, 행복을 선물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신부님, 손수건 한장 주실래요?

허영엽 지음 | 200면 | 8,000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가 은경축을 기념하여 지난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교회 월간지 등에 기고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책이다. 가족, 특히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제 생활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웃들과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소박하고 진솔하게 풀어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재미와 감동,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부디 삶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작은 휴식과 기쁨이 되고, 참 생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진석 후기경

봄비 내리는 새벽에 허영엽 신부님의 글을 읽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는 눈물이었습니다.

- 작가 신경숙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96면(한글판) · 80면(영문판) | 각 권 900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이다. 매일의 전례에 따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놓은 '아침 트랙', 그달의 주제에 맞는 가르침이나 인물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성 에세이'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어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 성토요일



성토요일의 성모님

카를로 마르티니 지음 | 이건 옮김 | 84면 | 4,000원

이 책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혼란과 절망을 겪으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던 성모님을 통해 성토요일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준다. 또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도 일러 주고 있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제4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 마임극 '두 도둑 이야기' : 5월19일(화)~21일(목) 20시
- 마임극 '화살표 방향으로' : 5월23일(토) 16시·19시, 24일(일) 15시



제4회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이 5월24일(일)까지 대학로 정보소극장에서 있다. '나는 배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신체극, 움직임극, 마임, 무용, 댄스씨어터 등 다양한 공연들을 올리고, 관객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예약 및 문의: 764-7462 · 입장권: 일반 2만 원, 청소년 1만5천 원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연극 '죽기살기'

- 입장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예약 및 문의: 889-3561, 2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5시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연극 '죽기살기'가 5월16일(토)~27일(수), 아르코시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사람을 실수로 죽여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주인공을 통해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하냐'라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이끌어낸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